

##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적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

### Sexual Communication and Marital Quality of the Korean Married People in their 30s and 40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남 영 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옥 선 화

석사과정 김 지 애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Youngjoo Nam

Professor and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 Sun Wha ok

Graduates Course : Ji Ae Kim

#### ◀ 목 차 ▶

I . 문제제기  
II . 이론적 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및 해석  
V .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mmunication and marital quality.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leted by 695 married men and women aged in their 30s and 40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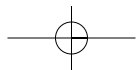
For the interaction coordination and postsexual inter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at men had more interaction coordination and postsexual interaction than women. The results show the stereotype of sexuality in Korean society that men should be more active, and assertive while women should be passive and dependent.

For both men and women, those who had more dyadic sexual communication, more interaction coordination, and more postsexual interaction had a higher level of marital quality. That is, sexual communication can function significantly in increasing marital qua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training to improve sexual communication skills. For example, in educational programs for couple enrichment, it will be useful to include skills such as expressing ones' desire, affect, and feelings explicitly.

Corresponding Author: Youngjoo Nam,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San 56-1 Sh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70 Fax: 82-2-871-2506 E-mail: yjnam2@snu.ac.kr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주제어(Key Words):** 성적 의사소통(sexual communication), 성에 대한 대화(dyadic sexual communication),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sexual interaction coordination), 성관계 후 상호작용(postsexual interaction),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 1. 문제제기

성(性)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음담, 육담 등의 형태로 일상의 유머에 성이 주요 소재로 사용됨으로써(김진호, 한성일, 장권순, 이태환, 2002) 인간의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였을 뿐 아니라, 사설시조나 판소리와 같은 고대 문학 장르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였다. 중국 또한 일찍이 고대사회에서부터 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서구의 풍속사 역시 인간 내면의 심연의 역사로 여겨지는 에로스의 역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성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에 비해, 학문적 분야에서의 성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다고 보인다. 특히, 인간관계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야에서 부부관계 내에서의 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성에 대한 연구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Maddock, 1989; Murray & Leigh, 1995) 왜냐하면, 연구 주제 자체가 가지는 민감성 이외에도, 가족과 성 또는 결혼과 성의 상호관련성은 법적·도덕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명시적·암묵적 규범이 작용함으로써(Christopher & Sprecher, 2000), 부부관계 내에서의 성이 특별한 관심을 받을만한 현상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적부부 관계를 구성하는 통합적인 요소로 간주되기보다는 성 기능 장애, 성적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치중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의 위상을 더 이상 고립된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이나 결혼, 가족과 같은 인간의 감정과 제도들이 뒤얽히는 기제(변화순, 1999)로 파악해야 한다. 성은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Weeks, Holland, & Waites, 2003)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관계적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Sprecher & Regan, 2000) 보다 통합적인 삶의 경험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부관계로 대표되는 친밀한 인간관계 내에서의 성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특히 부부간의 성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만족할만한 것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되어왔다(Byers & Demmons, 1999; Cupack & Comstock, 1990; Masters &

Johnson, 1986). 부부간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나 성적인 선호, 기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노출을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부관계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Byers & Demmons, 1999). 즉, 부부가 자신들의 성생활에 대해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하고, 또 언어적·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와 자신의 성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이 부부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애정을 나누는 중요한 양식이라는(옥선화, 정민자, 고선주, 2000)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Sprecher와 Regan(2000)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에 관해 의사소통할 경우에는 직접적이지 못하고 종종 간접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욱이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 직유적, 개방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 사적이며 은폐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부부기간이라 하더라도 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전달이나 의견의 표현 등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 자신의 성적인 문제나 성적인 선호, 또는 성행동에 부가된 감정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몸짓이나 움직임, 눈빛 등 비언어적인 측면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술은 부부로 하여금 각자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게 해 주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에 대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 향상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만큼 부부간의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경희, 1998; 전길양, 임선영, 1998)에서 성은 주로 결혼 만족도나 부부 적응, 또는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하위 영역이나 구성요소로서 규명된 바 있으나, 부부간의 성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또, 성을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된 선행연구들(김연, 2001; 김효현, 1996; 문혜숙, 1993; 윤양현, 1987; 이영실, 1989)도 주로 성생활만족과 부부의 적응 및 갈등과의 관계나 성생활만족도 자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성이 부부의 관계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측면임을 밝혀내는 데는 기여했으나, 부부간의 성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의사소통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성적 의사소통은 남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성적 의사소통은 결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그러하듯이, 의사소통은 반드시 언어적인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행동이나 몸짓, 얼굴 표정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할 때도 있다고 보아진다. 성적 의사소통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성에 대한 부부간의 구체적인 대화 이외에, 부부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성관계로 이끌기 위한 상호작용의 조정, 또 성 행동이 발생한 이후의 부부간의 상호작용 등도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다(Woody, 1992; 1994). 따라서 성적 의사소통을 언어적인 대화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sexual interaction coordination)이나, 성관계 후 상호작용(postsexual interaction)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대상은 삼, 사십대의 기혼 남녀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성적 에너지 수준이 높은 기혼 연령집단일 뿐 아니라, 각각 386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함으로써 세대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 의사소통의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 기혼 남녀의 성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상담담 및 성치료 영역에도 의미 있는 함의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적 의사소통

가족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의사소통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상황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성적 의사소통을 살펴보는 것이 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부부 각자는 성에 대해 의사소통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혼동이나 오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부의 성적 안정감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Clement, 2002).

그러나 성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성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나 동기, 가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의사소통이 반드시 언어적 메시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성적 의사소통 또한 성에 대한 대화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Rider(2000)는 의사소통의 언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사람들의 눈빛, 몸짓, 얼굴 표정, 움직임 등도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부간의 성 행동 자체가 의미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제가 되어 성을 보다 긍정적이고 일상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에 대한 대화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부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성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리고, 성행동이 발생한 뒤에 감정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거나 평가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성에 대한 대화

의사소통이론가들은 모든 문제는 잘못된 의사소통에 기인한다고 했을 만큼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이는 그만큼 대인관계에서는 서로 명확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필요할 때에는 자기 노출을 적절하게 하며, 자신의 요구나 견해를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상호 만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적 각본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료의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가들은 성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성에 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자기노출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MacNeil & Byers, 1997). 또한 Byers & Demmons(1999)의 연구에서도 성적 대화와 자기 노출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잘 파악하는 것은 성적 보상을 더 증가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에 대한 대화는 관계의 친밀성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개방된 상호작용은 성과 관련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2호, 2006

된 문제에 관한 부부간의 상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적인 욕구나 선호에 관한 자기노출은 성생활에서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부부간의 성에 관련하여 배우자와 의사소통을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상호 만족하는 바람직한 성관계를 이끄는 방향으로 서로 조정하는가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정 자체가 의사소통의 기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기제에 의해 배우자와 자신의 성에 대한 바람직한 성의 의미를 형성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Woody 등(1994)은 성기능의 문제로 임상가를 찾은 집단과 다른 문제로 가족치료를 받는 집단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은 성기능 문제가 있는 집단에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상호작용 조정 정도가 부부간의 성문제 유발에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상호작용 조정이 잘 될수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성적인 각본과 의미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어나가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 3) 성 관계 후 상호작용

사회심리학자인 캐롤 타브리스(1992)는 성행동을 연구할 때에는 단지 행위의 횟수나 경험된 절정감 등의 행동적인 측면뿐 아니라 행동 뒤의 느낌과 동기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성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Woody 등(1994)은 부부간의 성행위 뒤에 오는 상호작용이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한다면 행동이 발생한 뒤 배우자에 대한 감정전달이나 표현방식 등이 다음에 발생하는 성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배우자가 성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나 성에 대한 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성 관계 후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 2. 성적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

애정이나 친밀감, 신뢰감을 중요시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의 성 또한 단순히 성행동의 수행이나 그러한 행동을 통한 기본적인 인간의 성욕 해결, 자녀의 출산, 또는 쾌락이나 절정감의 경험만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은 관계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Schwartz & Rutter, 1998). 즉, 성은 사랑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하

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헌신이나 몰입을 확인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Sprecher & Regan, 2000), 부부간에 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관계적 현상에 있어서도 유의한 함의점을 가진다.

더욱이 인간이 인생 전반에서 경험하는 성생활의 대부분이 부부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설명해주는 차원으로서의 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부부의 신흠기 성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적인 에너지와 성생활의 빈도와 같은 양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어온 반면, 신흠기를 넘어서면 성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게 된다(Levine, 1998). 즉, 성행위 자체나 빈도에 두었던 성의 초점이 점차 성에 대한 대화나 자기노출,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생활 만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부부간 성의 질적인 측면이 양적 측면보다 관계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더 중요한 인자(Sprecher & Regan, 2000)라는 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때로는 역설적이거나 양가적인 특성을 띠기도 하는 인간 경험의 한 측면으로서 성을 연구할 때 단지 부부간의 성행동이라는 물리적 측면보다는, 성행동의 이면에 있는 의미, 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질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부부간에 발생하는 성 현상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찌기 Masters와 Johnson(1986)도 파트너간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이 만족스러운 성적인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얘기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성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성생활만족도 뿐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yers & Demmons, 1999; Cupack & Comstock, 1990; Sprecher & Regan, 2000). 또 성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서(Burr, Day, & Bahr, 1993; Gottman & Silver, 2000; Olson & DeFrain, 2000)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 기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고 Gottman과 Silver(2000)가 지적한 바 있다. 국내의 한 연구(문혜숙, 1993)에 따르면, 성적 적응이 잘 되는 부부에게서는 성에 관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적 적응이 잘 되지 않는 부부들 사이에서는 부부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불만족이나 부적응이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인지 또는 전무한 의사소통이 부부의 성적 불만족과 부적응에 기인한 것인지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적응과 부부의 의사소통은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다른 연구(이영실, 1989)에서도 성생활 불만족이 성생활 의사소통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성생활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한 연구(서선영, 2002)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적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성생활을 통한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이 더욱 증진되는 반면, 부부 사이의 불일치나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론에 의하면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부부문제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있는 삼, 사십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 부부의 성행동이나 성과 관련된 관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삼, 사십대로 제한한 것은 Kinsey 등(1953)이 일찌기 여성의 성적 활동이 가장 증가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삼, 사십대라고 지적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20대의 경우 우리 사회의 초혼 연령 상승에 따라 기혼자의 비율이 크지 않다. 2000년 총인구 조사에 의하면(통계청, 2001) 20대의 경우 미혼율은 74%로 나타나 대상 연령층 기혼자의 비율이 1/4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성인의 섹슈얼리티 발달을 6단계로 나누었던 Levine(1998)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의 경우는 삼, 사십대와 다르게 생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 행동을 비롯한 성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폐경이 주로 50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적인 요인이 성적인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50대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양성의 성 호르몬 감소를 유사한 신체적인 현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0대 남성의 성

적인 수행능력이 감소하는 데 대한 다양한 양상들을 발견한 의학자들은 남성 폐경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Levine, 1998). 또한 6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성 기능의 급격한 감퇴와 함께 전반적인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성의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생리적인 측면 이외에 한편으로 삼, 사십대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경험의 특징을 지니는 세대로 볼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삼, 사십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 자체가 성각본의 유지 또는 변화라는 과도기적인 맥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대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30대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고등 교육의 대중화, 세계화,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를 직접 주도하거나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이 경험한 일련의 생활사건들이 성에 대한 의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86세대로 대표될 수 있는 30대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전통주의의 지지자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므로(조대엽, 2002), 30대는 이미 전통적인 성 가치관을 탈피하였거나 또는 전통과 진보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의 40대는 6.25 전쟁 후 복귀기인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한다(함인희, 2002). 이들은 절대 빈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으로써 높은 삶의 질의 성취라든가 인간의 행복 추구에 물질적 풍요가 충분 조건이 아님을 인식하는 세대이다. 즉, 40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선호하며, 경제적인 부모대는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40대는 일하는 엄마의 증가와 이혼의 증가 등 새로운 가족 규범을 창출하기 시작한 세대로 인식되기도 한다(함인희, 2002). 따라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삼, 사십대의 성적 의사소통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서울 및 수도권의 기혼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나 교육수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 2. 조사도구

##### 1) 조사도구의 적합성 검토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기보고식 방법의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척도(성에 대한 대화 척도,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 척도, 성 관계 후 상호작용 척도)에 대한 내용 타당도 및 양호도를 검사하기에 앞서, 이 척도들은 모두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고 우리 나라 연구에서 이용된 적이 없으

므로 문화간 차이와 오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문화간 차이가 예측되는 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얼마나 우리 문화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조사에 앞서 척도의 내용 타당도 및 양호도 검사를 거쳐 문항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이 우리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무리 없이 수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 2) 성에 대한 대화 척도(Dyadic Sexual Communication Scale)

성에 대해 부부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성에 대한 대화 척도는 Catania(1986)가 고안한 6점 리커트의 부부간 성 의사소통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또한 역번역, 적합성 검토, 예비조사단계를 거쳐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85로 신뢰할만한 수치로 검증되어 본조사에서도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척도는 부부가 성행동이나 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지의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내가 우리 부부의 성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내 배우자는 거의 반응이 없다', '내 배우자는 내가 성생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우리 부부는 별로 거부감 없이 성을 대화의 화제 거리로 다룰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모두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응답 방식은 대화나 의사소통의 정도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주어진다. 따라서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78점까지이다. 1년부터 7년까지의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 3)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척도(Interaction Coordination Scale)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척도는 Woody(1992)의 5점 리커트 척도인 Sexual Interaction System Scale(SISS) 중 Interaction Coordination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sup>2)</sup>. 다른 척도와 마찬가지로 역번역, 적합성 검토, 예비조사 단계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더 높아지는 한 문항(나는 성행위 중에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에 대해서 부분적인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작업을 거친 후 본 조사용으로 사용된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척도는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예를 들면, '나는 배우자의 성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키려고 애쓴다', '나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찍 성관계를 끝낸다', '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로써, 두 사람 모두에게 성행위가 즐겁도록 만든다' 등이다.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척도는 부부 두 사람이 성행동이나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상호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1번, 2번, 3번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조사 결과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2로 다소 낮게 나오므로써 1번 문항(나는 성행위 중에 그때 그때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척도는 모두 5문항이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 문항을 제외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2로 신뢰할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 4) 성 관계 후 상호작용 척도(Postsexual Interaction Scale)

Woody(1992)가 개발한 Sexual Interaction System Scale(SISS) 중 Postsexual Interaction 하위영역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원척도를 번안하는 역번역의 과정을 거치고, 다음 척도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 본조사의 과정을 거쳤다.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된 성 관계 후 상호작용 척도를 본조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2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성관계 후에 슬프거나 실망스럽다', '나는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동안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흠잡는다',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동안은 배우

1) 즉, 척도문항의 의미에 문화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타당한 번역을 위해서 연구자가 1차로 원척도를 번역하여 문항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에 모두 능통한 언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두 차례에 걸친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 과정은 먼저 영어로 된 문항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번역하도록 위임한 뒤, 다시 그 문항들을 영어로 번역해보는 작업으로 두 차례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2) 이 척도는 국내에 전문가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척도의 개발자에게 e-mail로 연구자가 직접 연락하여 우편으로 척도 전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자의 애정 표시를 외면한다' 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나 성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에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더욱 더 친밀해지고 가까운 느낌을 가지거나 표현하는 정도가 커짐을 뜻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85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 5) 결혼의 질 척도

결혼의 질 척도는 Spanier(1976)의 The Dyadic Adjustment Scale을 개정한 Adapted Dyadic Adjustment Scale (ADAS)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ADAS는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의, 만족, 응집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영역은 또다시 동의의 경우 의사결정, 가치관, 애정의 세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은 안정성과 갈등의 두 세부 하위 영역으로, 응집은 활동과 의논의 두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부 하위 영역이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동의에 포함된 애정의 구체적인 문항에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 관한 문항이 있으므로 이 문항만 척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고 모두 13문항을 사용하였다. 활동 영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6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점수범위는 13점에서 77점까지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의사결정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직업과 관련된 결정이 포함되어 있고, 가치관의 경우 종교적인 문제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문항, 애정의 경우 애정의 표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정성의 세부 영역은 결혼의 해체나 결혼에 대한 후회의 정도, 갈등은 말다툼과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는 정도에 관해 물어보고 있다. 활동은 외부의 관심사 공유와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하기를 포함하고, 의논은 서로를 격려해주는 생각의 교환과 어떤 일에 대한 부부간 상의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가 .8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 3.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질문지법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질문지를 수정한 후, 2003년 1월 17일부터 2003년 3월 7일까지 49일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조사에 동의하는 삼, 사십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직접 자료를 얻는 방법과, 회사, 학교, 아파트 부녀회 등의 책임자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 조건에 맞는 기혼 남녀를 소개받아서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들을 조사요원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조사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 훈련과정을 거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가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질문지를 작성한 당사자가 직접 봉할 수 있도록 모든 질문지의 봉투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다. 따라서 질문지를 본인이 봉해서 조사요원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답할 경우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송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였다.

그 결과 총 820부를 배포하여 이 중 72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7.8%). 회수된 720부 중 부실 기재하였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50대 이상의 응답자의 질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695부이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처리를 위해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에 대한 대화,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 성 관계 후 상호작용 조정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한편, 성적 의사소통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적 의사소통에 따른 결혼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추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각각 남성이 49.4%, 여성이 50.6%이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삼십대가 전체의 57.6%, 사십대가 42.4%이어서 삼십대가 좀 더 많이 표집되었으며, 평균연령은 38.1세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대졸이 56.6%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27.1%, 대학원 이상이 12.6%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대가 가장 많아서 27.8%이며,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인 19.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대가 18.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대가 17.5%, 500만원대 이상이 16.4%이다. 평균가계소득은 392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가계조사에 의한 2002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인 280만원(통계청, 2002)과 비교해보았을 때 높은 편이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28.7%, 불교 17.3%, 천주교 13.1%의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 8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2호, 2006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695)

| 변수       | 집단            | 빈도(%)       |
|----------|---------------|-------------|
| 성별       | 남             | 343( 49.4)  |
|          | 녀             | 352( 50.6)  |
| 연령       | 삼십대           | 356( 57.6)  |
|          | 사십대           | 339( 42.4)  |
|          | 평균(표준편차)      | 38.1( 5.19) |
| 교육수준     | 고졸            | 187( 27.1)  |
|          | 전문대졸          | 25( 3.6)    |
|          | 대졸            | 390( 56.6)  |
|          | 대졸이상          | 87( 12.6)   |
| 가계소득     | 200만원 이하      | 131( 19.4)  |
|          | 200이상~300만원미만 | 188( 27.8)  |
|          | 300이상~400만원미만 | 128( 18.9)  |
|          | 400이상~500만원미만 | 118( 17.5)  |
|          | 500만원 이상      | 111( 16.4)  |
| 평균(표준편차) | 392.1(303.7)  |             |
| 종교       | 기독교           | 199( 28.7)  |
|          | 천주교           | 91( 13.1)   |
|          | 불교            | 120( 17.3)  |
|          | 기타 종교         | 1( 0.0)     |
|          | 무교            | 282( 40.7)  |
| 직업(남성)   | 전문직           | 60( 17.5)   |
|          | 행정 및 관리직      | 41( 12.0)   |
|          | 준전문직          | 6( 1.7)     |
|          | 일반사무직         | 167( 48.7)  |
|          | 서비스 및 판매직     | 50( 14.6)   |
|          | 기술직           | 10( 2.9)    |
|          | 기타            | 8( 2.3)     |
|          | 무직            | 1( 0.3)     |
| 직업(여성)   | 전문직           | 69( 19.6)   |
|          | 행정 및 관리직      | 8( 2.3)     |
|          | 준전문직          | 18( 5.1)    |
|          | 일반사무직         | 76( 21.6)   |
|          | 판매 및 서비스직     | 41( 11.6)   |
|          | 전업주부          | 132( 37.5)  |
|          | 기술직           | 1( 0.3)     |
| 기타       | 7( 2.0)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283( 41.2)  |
|          | 맞벌이 아님        | 404( 58.8)  |
| 결혼기간     | 5년 미만         | 206( 29.8)  |
|          | 6~10년         | 194( 28.0)  |
|          | 11~15년        | 155( 22.4)  |
|          | 16~20년        | 73( 10.5)   |
|          | 20년 이상        | 64( 9.2)    |
| 평균(표준편차) | 9.5( 7.1)     |             |
| 배우자 선택유형 | 중매혼           | 72( 10.4)   |
|          | 연애혼           | 452( 65.0)  |
|          | 중매반 연애반       | 160( 23.0)  |
|          | 기타            | 11( 1.6)    |
| 결혼상태     | 초혼            | 671( 96.5)  |
|          | 재혼            | 17( 2.9)    |
|          | 기타            | 4( 0.6)     |
| 자녀수      | 1명            | 269( 40.0)  |
|          | 2명            | 371( 55.2)  |
|          | 3명            | 31( 4.6)    |
|          | 4명            | 1( 0.1)     |
|          | 평균(표준편차)      | 1.6( 2.5)   |

\* 변수별 미응답으로 인하여 총응답자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살펴보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직이 48.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17.5%, 서비스 및 판매직이 14.6%, 행정 및 관리직이 12.0%, 기술직이 2.9%, 기타가 2.3%, 준전문직<sup>3)</sup>이 1.7%, 무직이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아서 37.5%였고, 일반 사무직이 21.6%, 전문직이 19.6%, 서비스 및 판매직이 11.6%, 준전문직이 5.1%, 행정 및 관리직이 2.3%, 기타가 2.0%, 기술직의 경우가 각각 0.3%의 순이다. 맞벌이 여부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41.2%가 맞벌이 부부이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지속년수는 5년 미만이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년~10년이 28.0%, 11년~15년이 22.4%, 16년~20년이 10.5%의 순이며, 20년 이상인 경우도 9.2%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결혼지속년수는 9.5년이다.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선택 유형은 연애혼인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매반 연애반인 절충혼이 23.0%, 중매혼이 10.4%, 기타의 경우가 1.6%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초혼이 96.5%로 거의 대부분이며, 재혼이 2.9%, 별거가 0.6%이다.

한편,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55.2%이며, 1명이 40.0%, 3명이 4.6%, 4명이 0.1%이다. 평균 자녀수는 1.6명인데 이는 인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집계된 평균자녀수 2.3명(통계청, 2001)에 비하면 낮은 수치인데, 이는 아마도 조사대상자가 삼십대와 사십대로 한정되어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2. 성적 의사소통의 전반적 경향

성적 의사소통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삼, 사십대의 기혼남녀는 성적인 의사소통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성에 대한 대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척도의 범위: 13점~78점, 평균값: 52.6점). 따라서 성에 대한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문항별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해볼 수 있다. 즉, '우리 부부의 성생활에는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문제도 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성생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등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대화를 묻는 문항과 '나는 성행위에 관한 나의 취향을 어려움없이 이야기한다', '나는 배우자와 성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의 적극적인 대화를 묻는 문항들의 응답 점수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항당 4점을 웃도는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3) 2002년도 기준 한국의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조사대상자 중 치과 위생사나 보험 컨설턴트, 부동산 중개인, 병리사, 학원강사, 방문교사 등을 준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통계청, 2000)



는 대부분 중간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 표명이나 선호를 표출하고, 거부감 없이 어색하지 않게 성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 등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척도의 범위: 5점-25점, 평균값 22.0점과 성관계 후 상호작용(척도의 범위: 5점-50점, 평균값 41.4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관계 후 상호작용을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동안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흠잡는다',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동안은 배우자의 애정표시를 외면한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는 성행위가 끝나고 나면 배우자에게 애정이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다', '나는 성행위가 끝났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등의 긍정적인 정서의 표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성관계 후의 상호작용 또한 성에 대한 대화와 마찬가지로 보다 친밀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성적 의사소통에 대한 남녀 차이

성적 의사소통이 남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성에 대한 대화

실제 성에 대해 부부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2) 참조). 남녀 모두 평균값이 52점을 상회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성에 대한 대화가 부부간에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이 삼, 사십대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 현재 삼, 사십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과도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30대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고등 교육의 대중화, 세계화,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를 직접 주도하거나 경험한 세대로서 그들이 경험한 일련의 생활사건들이 성에 대한 의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40대는 절대 빈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으

〈표 2〉 성에 대한 대화의 남녀 차이

| 성적 의사소통  | 성 별 | N   | 평균(표준편차)     | t    |
|----------|-----|-----|--------------|------|
| 성에 대한 대화 | 남 성 | 325 | 52.31(10.31) | -.59 |
|          | 여 성 | 326 | 52.81(11.24) |      |

로써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선호하며, 경제적인 부보다는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대는 부부간에 하나의 대화거리로서 성을 다루는 데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없고, 성생활에서 원하는 바에 대해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등 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

〈표 3〉에는 각각의 배우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조정 노력이 남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있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부부간의 성행동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희열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키려고 애쓰며, 두 사람 모두에게 성행위가 긍정적인 경험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상호작용 조정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여전히 성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Oliver & Hyde, 1993)하고 있고, 남녀간의 성에 대한 분리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Clements-Schreiber, Rempel, & Desmarais, 1998)는 점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이나 성관계에서 남편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부인은 성에 대해 순종적이고 소극적이어야지 바람직하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성에 대한 상호작용조정의 남녀 차이

| 성적 의사소통       | 성 별 | N   | 평균(표준편차)    | t      |
|---------------|-----|-----|-------------|--------|
|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 | 남 성 | 332 | 22.86(2.91) | 6.97** |
|               | 여 성 | 336 | 22.10(3.24) |        |

\*\* $p < .01$

#### 3) 성관계 후 상호작용

부부간 성행동 뒤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남녀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부부간의 성관계 후 만족감을 느끼고, 성행동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민망하거나 쑥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애정이나 따뜻한

〈표 4〉 성관계 후 상호작용의 남녀 차이

| 성적 의사소통    | 성 별 | N   | 평균(표준편차)    | t      |
|------------|-----|-----|-------------|--------|
| 성관계 후 상호작용 | 남 성 | 333 | 42.10(5.59) | 2.61** |
|            | 여 성 | 335 | 40.99(5.45) |        |

\*\* $p < .01$

〈표 5〉 성적 의사소통에 따른 결혼의 질(남성)

| 성적 의사소통       | 집단(N)      | 평균(표준편차)    | F         | scheffé |
|---------------|------------|-------------|-----------|---------|
| 성에 대한 대화      | 낮은 집단(87)  | 49.45(6.56) | 36.73**** | a       |
|               | 중간 집단(143) | 54.60(6.78) |           | b       |
|               | 높은 집단(92)  | 57.65(5.87) |           | c       |
|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 | 낮은 집단(98)  | 51.98(7.89) | 10.87**** | a       |
|               | 중간 집단(136) | 53.95(6.47) |           | a       |
|               | 높은 집단(95)  | 56.62(6.54) |           | b       |
| 성관계 후 상호작용    | 낮은 집단(72)  | 50.29(8.09) | 25.20**** | a       |
|               | 중간 집단(167) | 53.74(6.62) |           | b       |
|               | 높은 집단(91)  | 57.70(5.44) |           | c       |

\*\*\*\* $p < .001$ 

〈표 6〉 성적 의사소통에 따른 결혼의 질(여성)

| 성적 의사소통       | 집단(N)      | 평균(표준편차)    | F         | scheffé |
|---------------|------------|-------------|-----------|---------|
| 성에 대한 대화      | 낮은 집단(88)  | 47.30(9.56) | 34.21**** | a       |
|               | 중간 집단(131) | 54.88(7.38) |           | b       |
|               | 높은 집단(104) | 56.15(6.93) |           | b       |
|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 | 낮은 집단(96)  | 49.03(9.69) | 19.77**** | a       |
|               | 중간 집단(160) | 54.29(7.62) |           | b       |
|               | 높은 집단(76)  | 56.61(7.85) |           | b       |
| 성관계 후 상호작용    | 낮은 집단(116) | 48.66(8.89) | 37.07**** | a       |
|               | 중간 집단(114) | 53.89(7.73) |           | b       |
|               | 높은 집단(102) | 57.91(7.05) |           | c       |

\*\*\*\* $p < .001$ 

마음으로 표현하는 등의 의사소통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성적인 관계로 인해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남영주, 옥선화, 2004)와 일맥상통한다. 즉, 남성은 성행동 자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느끼거나 두 사람간의 일체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 3. 성적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

성적인 의사소통 정도<sup>4)</sup>에 따라 결혼의 질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에 대한 대화의 수준이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결혼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에 대한 부부간의 일상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높은 결혼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은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 사이에는 결혼이 질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그리고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는 결혼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부가 성행위 이후에 느끼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관계 후 상호작용은 각 집단별로 결혼의

질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성관계 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에 대한 대화와 성적인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낮은 집단과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집단 간에 결혼의 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성관계 후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구분된 3집단의 결혼의 질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성관계 후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되어질 때 결혼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부부간의 성적인 의사소통이 결혼관계의 전반적인 질이나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Byers와 Demmons(1996)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뿐 아니라 특히 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보다 큰 관계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Cupack과 Comstock(1990)도 부부의 성적인 의사소통은

4) 부부간의 성에 대한 대화, 성적인 상호작용의 조정, 그리고 성관계 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성적인 의사소통정도는 각각의 전체 응답자의 점수 분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에 대한 대화는 상위 집단이 전체의 약 35%, 중위 집단이 약 30%, 하위 집단이 약 35%를 차지하였다. 성적인 상호작용의 조정과 성관계 후 상호작용은 상위집단은 전체 분포의 약 30%, 중위집단은 약 40%, 하위집단은 약 30%에 해당하였다.

성적인 만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결혼 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모든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반영하며 관계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precher, Metts, Burleson, Hatfield, & Thompson, 1995)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인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의 관계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부부간의 성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성이라고 할 수 있듯이,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요소 또한 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인간관계 내에서의 성에 대한 서구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성행동이나 성에 대한 지식과 같은 성의 단편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을 벗어나, 보다 관계적인 맥락 내에서의 성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Christopher & Sprecher, 2000). 이는 부부간의 성생활 부재나 비효율적인 성적 의사소통이 별거나 이혼의 가능성과 관계가 많다(Donnely, 1993)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이 결혼이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만족도나 성공적인 결혼과 중요한 상호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인다.

한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은 일상생활이나 문화 속에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성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은폐하고, 성에 관한 언행을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행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양가적인 특성을 반영하듯 성에 대한 국내 연구도 90년대 말 이후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나, 성이라는 주제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부부갈등이나 부부 적응 등 관계적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삼, 사십대의 기혼 남녀에게서 성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해보고, 성적인 의사소통이 결혼의 질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사소통이 반드시 언어적인 메시지의 전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 또는 감정이나 몸짓, 행동, 눈빛 등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상호교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만족에는 명백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간접적인 의사소통 또한 영향을 미친다(Meeks, Hendrick, & Hendrick, 1998; Sprecher & Regan, 2000)는 데 근거하여, 성적 의사소통을 부부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에 대한 대화의 정도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성관계 후 상호작용 측면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적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성에 대한 대화, 성적인 상호작용의 조정, 성관계 후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나 대화를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부부간의 성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성적인 의사소통 양상이 남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에 대한 대화에 관해서는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성에 대한 상호작용 조정과 성관계 후 상호작용 수준은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부부간의 성을 서로 만족할만한 것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작용과 성행동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감정의 피드백 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삼, 사십대가 지닌 세대적 특성에 의해 성적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남성 주도적인 성문화를 반영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에 있어서 주도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부부관계를 상호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성관계 이후에 배우자에게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등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간의 성적인 의사소통은 성생활만족 뿐 아니라 나아가 부부관계 전반의 만족에도 기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보다 효율적인 성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부부간의 성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성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간 의사소통 중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의사소통 수준별로 결혼의 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부부간의 성에 대한 자기 노출이나 성에 대한 대화, 성적인 행동과 성적인 관계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부부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들, 성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부부 사이에서 발

생하는 반응과 배우자에 대한 피드백 등이 결혼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부부간의 불분명하고 간접적인 의사소통은 성에 관한 모호한 양상을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배우자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다(Sprecher & Regan, 2000)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공식적으로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은폐하고, 성에 관한 언행을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따라서 부부사이에서조차도 때로는 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수치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볼 때 기혼 남녀가 성에 대해 왜곡되지 않고 건전한 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성적인 이슈에 대한 상호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즉,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배우자의 성에 대한 요구와 태도를 명확하게 아는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발달을 도모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인 의사소통을 성에 대한 대화, 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조정, 성관계 후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실제로 이러한 성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파악이 될 때 부부간의 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삼, 사십대의 기혼 남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 사십대라는 연령층은, 성적인 에너지의 변화나 폐경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과 그 세대들이 공유하였던 경험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부간의 성은 연령이나 부부관계의 발달 상황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를 연구 및 분석단위로 삼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성적인 의사소통도 결국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부라는 관계적 맥락 내에서의 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가 보다 유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제 자체가 민감하고 사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적인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간의 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진실을 풀고, 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거나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 연(2001). 기혼 남녀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 한성일, 장권순, 이태환(2002). 한국의 언어와 문화. 한국문화 바로알기. 국학자료원.
- 김효현(1996). 성생활만족도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영주(2003). 삼·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 의미 유형과 결혼만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영주, 옥선화(2004). 삼·사십대 기혼 남녀의 생각본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6(3), 73-103.
- 문혜숙(1993).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화순(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연관성. 한국어 성개발원. '99세계 인권 선언일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서선영(2002).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 정민자, 고선주(2000).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윤양현(1987).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 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길양, 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6), 1-12.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http://www.nso.go.kr)
- Baetjer, S. A. (2000). Gender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patterns among young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HIV/AIDS risk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 Burr, W. R., Leigh, G. K., Day, R. D.,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Y: The Free Press.
- Byers, E. S., Demmons, S. (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 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6(4), 399-410.
- Catania, J. A. (1986). Dyadic Sexual Communication

- Scale. *Handbook of sexuality related measures*. Thousand Oaks: Sage.
- Christopher, F. S., & Sprecher, S. (2000). Sexuality in marriage, dating, and other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99-1017.
- Clement, U. (2002). Sex in long-term relationships: A systemic approach to sexual desire problem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1(3), 241-246.
- Clements-Schreiber, M. E., Rempel, J. K., & Desmarais, S. (1998). Women's sexual pressure tactics and adherence to related attitudes: A step toward predi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5(2), 197-206.
- Crimmins, K. A. (1998). Sexual communication, communicator style, and sexual aggression in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Alabama
- Cupach, W. R., & Comstock, J.(1990). Satisfaction with sexual communication in marriage: Links to sexual satisfaction and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79-186.
- Gottman, J. M., & Silver, N. (2000).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Y: Crown Publisher.
- Kinsey, A. C., Pomery, W. B., Martin, C. E., & Gehhard, P. H.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Saunders.
- Levine, S. B. (1998). *Sexuality in Mid-Life*. NY: Plenum.
- Lundquist, K. M. (1996).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ies, sexual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romantic relation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Texas.
- MacNeil S., & Byers, E. S.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6(4), 277-284.
- Masters, W. H., & Johnson, V. (1986). *Sex and Human loving*. Boston: Little Brown.
- McCarthy, P. F. (1995). Rural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violence in marital and cohabitating heterosexual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eeks, B. S., Hendrick, S. S., & Hendrick, C. (1998).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6), 775-773.
- Murray C. I., & Leigh. G. K. (1995). Families and Sexuality. *Research and Theory in Family Scienc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Noar, S. M. (2001). Sexual negotiation and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ower in heterosexually active men an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 Oliver, M. B., & Hyde, J. A. (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1), 29-51.
- Olson, D. H., & DeFrain, J. (2000). *Sexual Intimacy.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3rd ed*. London · Toronto: Mayfield Publishing Com.
- Rider, E. A. (2000). *Sexuality. Our Voices: Psychology of Women*. CA :Wadsworth.
- Schwartz, P., & Rutter, V. (1998). *The gender of sexuality*. CA: Pine Forge.
- Spanier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28.
- Sprecher, S., Metts, S., Burleson, B., Hatfield, E., & Thompson, A. (1995). Domains of expressive inter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4, 203-210.
- Sprecher, S., & Regan, P. C. (2000). Sexuality in a relational context. *Close relationships: A Sourcebook*.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 Timm, T. M. (1999). The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adult attachment, and sexual communication in sexual and marital satisfaction: A path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Weeks, J., Holland, J., & Waites, M. (2003). Understanding sexualities and society. *Sexualities and society*. Cambridge: Polity.

William, R. C., & Jamie, C. (1990). Satisfaction with sexual communication in marriage: Links to sexual satisfaction and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79-186.

Woody, J. D., & D'souza, H. J. (1992). The sexual interaction system scale: A new inventory assessing sexual dysfunction and sexual distres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0*,

210-228.

Woody, J. D., D'souza, H. J., & Crain, D. D. (1994). Sexual functioning in clinical couples: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exual interaction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4)*, 291-303.

---

(2005년 10월 31일 접수, 2005년 12월 23일 채택)